

「키 1백62cm 이상, 몸무게 50kg 이상, 체중 50kg 이상, 단정한 여성」을 뽑아 두는 미인대회 등 모자 격요건을 연상시키는 이 문구는 사실은 대학가 취업포도심 앞에 버섯이 나뉘어 있는 모기업의 모진 채용요건이다. 내일이

본격적 취업시즌을 맞아 여성에게 외모나 체격조건을 채용기준으로 내세우는 기업이 많고 있다. 그치지않아도 마블(명인) 여대생들의 취업준비 더워지고 있다.

이렇듯 외모를 중시하는 곳은 필기시험을 여성에게 공개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는 기업이다. 부록 10여명 내외를 뽑는 중소기업에서는 아예 신문 광고와 일선주인 이상의 키와 몸무게를 필수하고, 명시하고 있고 일부 대기업에서도 체격조건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추천서를 버섯이 학교에 불리고 있다.

정말 전 모대대로 불어오는 제철회사인부의 비서를 뽑는 추천서에는 「키 1백59cm 이하」라는 이색조건이 붙어 있었다. 알고보니 그 비서가 모시게를 잡부의 키가 1백60cm가 안되므로 그보다 작은 키의 비서를 구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사례는 정부기관에서 사원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 지난 9월 실시된 여자경찰관 공

女社員 채용

“실력보다 외모”

개채용시험에서는 시험관들이 지원자가 스킷트를 무릎위로 끌어올리고 돌아볼 것을 요구해 지원자들의 반발을 샀다. 여경의 고용입부와 자선미와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흠터



응시기회 제한 등 남녀차별로 유난히 취업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키크고 단정한 몸모」를 요구하는 기업체가 늘어나 취업예비생들이 더욱 애를 태우고 있다.

뛰어나고 날선한 여성을 찾는 데 열심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키가 일천수준 이상 되어야 한다는지, 절대로 안경을 쓰면 안된다는지 하는 것은 취업 희망하는 여대생이면 누

여부를 살펴본다는 명분아래 이런 해프닝을 연출했던 것. 延世대출입반 李銀姬(임성생) 학생과 은 『기업측에서는 여성도 「실력」만 있으면 취업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용적인다면 다행치만 편서 외모가 불비고 있다.

구나 아는 상식으로 되어있다. 실제로 취업시즌에 들어선 요즘, 선형의과나 안과에는 얼굴을 고치거나 안경을 렌즈로 바꾸려는 젊은 여성들이 크게 불비고 있다.

모집 요강에 키 체중 등 明示

취업시즌되면 成形외과 불벼

이같이 기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여성에게 외모가 아름다울 것을 요구하는 현상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직장여성담당 최현경(최현경)은 「소수의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여성을 이 말게 되는 일 자체가 참조적이며 책임있는 일이 아닌 남성 보조 작업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입안 리에 외모가 단정하고 말쑥한 사람을 채용하게 된다고」고 분석한다. 일례로 여성민우회 상담본부에는 고교재학예졸은 전교수석을 했으면서도 키가 작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졸업후 2~3년까지도 취업을 못했다는 호소가 들어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체에서는 우유를 생산·유통시키고 있는 중견정도가 되고 수종적인 여성을 뽑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여성취업문제와 관련, 최근 취업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한梨花女大 총학생회 曹正一(여성부장(교육심리학과 4년))은 「실력이 아닌 외모나 외모로 인한 취업은 취업준비자에게도 불리할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불평등한 여성들의 부를 오히려 증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기업체들의 융화만이 여성채용규정과 기준에 관한 조사가 끝나서 대로 여성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기업에 대한 전화교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鄭銀姬기자〉